

지역 소식통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동참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지사장 박석범) 직원들이 고향 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와 정읍수도센터 직원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 위기의 고향을 살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에 참여하며,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직원 31명이 삶의 터전인 정읍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박석범 지사장은 "정읍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 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달라질 정읍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광역상수도 관리와 지방상수도 수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부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대상 상을 수상하여 기관 표창과 함께 1천 6백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의 2022년도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지방세 증감을 지방세 징수율,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 등 총 14개 항목의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부안군은 2020년도 최우수, 2021년도 우수를 수상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는 대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한 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위해 노력, 성실납세자 40명·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감사서한문 및 부안사랑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힘썼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탄력

부안 백산성지 조성·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부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2022년 10월 행안부 심사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 계획조정, 수요 및 운영수지 재분석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다음 차수 심사에 재상정된 결과 금년 3월에 심사를 통과하였다.

군에서는 총사업비 206억원으로 백산성지 역사복원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부심사 재검토 의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과 함께 중앙부처인 행안부와 문체부를 수



시로 방문에 사업 필요성 및 재검토 보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 계승 및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정부 심사를 거치는 제도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 계승 및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순항'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 완료

25년 만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관심이 높은 '고창군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며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전라북도로부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만2506㎡의 규모로 1217세대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의 기업입주에 대비해 직·주 근접 실현과 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고창읍 남부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8월 중 협의의 보상 착수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예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1998년 월곡택지사업 이후 시행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인가 및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정읍시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보장내용은 후유장애 시 1,0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안전모 구입 금액의 50%(최대 3만 원)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학수 시장의 소탈하면서 명쾌하고 화기애애한 소통이 빛을 발했다.

1700명 시민과 소통행보 빛났다

이학수 정읍시장, 23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학수 시장의 소탈하면서 명쾌하고 화기애애한 소통이 빛을 발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23개 읍면동을 일일이 찾아가 1,700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민생 경제 대책,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도시가스, 농·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을 수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총 13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

원이 90건(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도로 확장·포장과 농로 개설, 농·배수로 정비 등이 61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단속과 주차장 확대가 16건(12%)으로 뒤를 이었다.

또 쓰레기·하수도·가로수 관련 등의 생활 불편 민원이 13건(10%), 기타 의견으로 게이트볼장·체육시설·복지시설 설치 등 복지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주민 불편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에게 직접 현장을 찾아 조치하고, 처리 후 결과를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추경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건의 사항과 제안 등에 대해 추진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1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7일 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노형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공무원 6명과 박성만 군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명의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및 고창군 인구현황 보고, 고창군의 저출산 현상,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고창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신활력산업단지 조성,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급자리 조성·지원사업,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협조와 활동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